

Prologue of the job story (직업 이야기 서문)

I have had so many different jobs in my life. Some time, I will have another opportunity to explore of career world since one of the local colleges offered me to teach Interpretation between English and Koreans. It is not easy to find someone like me who have moved to so many jobs and enjoyed those jobs so much. Whatever I work for, I always feel that it is my own company or sometimes confused as if I am the owner of the place. I am not going to tell you every job I have experienced, because you and I do not have enough time to chat about them. Beside it will make you bored.

Nevertheless, I feel a responsibility to demonstrate how to get a job legally in USA. As soon as I arrived in Oklahoma, I went to Oklahoma City University (OCU) where I was supposed to study. Before I went to study at OCU, I went t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for TESOL (Teaching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ad several sister universities in USA, but OCU was not one of them. Although OCU did not belong to the associated sister colleges, but I chose the school due to lower my tuition and living expenses compared to universities in other states.

If you acquire a degree from accredited colleges or universities in the States, you are able to apply for a 'Practical training' Program which is a legal work permit for foreigners to get jobs to INS. From the date you graduate starts the legal work day for people who received the work permit and it expires one year later. Therefore, I advise you to try to search for jobs before your graduation.

While I was a student of the graduate school in Oklahoma, I was with American students and did not "hang out" with only other Korean students. Hence, some Korean students did not know that I was Korean. The purpose of being in USA for me was to immerse myself in American culture and the language. I was not sure how long I would be able to stay in America. There was limited time to have those types of chances.

Many people advised me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get hired as a foreigner in USA, but as usual, I did not listen to negative comments. I have a habit to find out the facts by my own experience or knowledge. And America was no exception for me, so I sent my resume all around the continent. What do you expect from it? As you guessed, I received plenty of contacts from San Francisco, Huston, Denver...etc.

Now that I had practiced so I could be hired, I should focus on being hired in Oklahoma City due to family at that time. I searched the classified ads in Oklahoma daily newspaper and went to job fairs. As a result, I could get three jobs around time of my graduation. Among them, I decided to work for two places, high school and a Hotel, at the same time. People thought it was crazy that I work for two places, but I was happy to have two jobs at that time. Of course, I could not manage two jobs for a long time due to not having good endurance, but I enjoyed the experience of learning two different job cultures at the

same time. Finally, three months later I chose one, the Hotel, which was more interesting to work and gave me mor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Americans. Interacting with Americans is why I went to USA. We often travel and stay in our own colonies of our own culture. We see the Americans do this when they come to Korea and stay on post and not explore out in Korea society. Koreans do the same, when they go to Washington, DC and stay in Annandale, VA which is a community of 50,000 Koreans with Korean signs and stores. Truly, you can live in that area with no English capability, but then why travel all that way to not learn about America.

The current trend in Korea is having two jobs, so I am proud of myself that I was advanced more than others. In this section, I will talk about many jobs I experienced. As they say in the TV world, Stay Tuned for more stories about jobs.
'To be continued....'

직업 이야기를 하자면 나처럼 다양한 직업을 거친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나의 커리어 행진은 끝나지 않았는지, 다음 달부터 또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맛 보게 된다. 다음 학기부터 수원에 있는 '장안대학'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따분할 수도 있으므로, 아니 사실 듣는 이 보다 같은 말을 해야 하는 내가 더 따분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이 섹션에 넣을 것이다.

각설하고, 한국에서도 무척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국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귀뜸해 주고자 하니, 지금부터 귀를 쫑긋, 눈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두 눈의 초점을 너무 가까이 맞추면 사시가 될 수 있으니까 두 눈 사이에 약간의 관격을 둘것. 가만, 웬 잔소리. 그냥 읽어 주세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학교에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석사 학위를 받기로 마음 먹었다. 숙명 여대에서 TESOL (Teaching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과정을 했으나, 내가 간 Oklahoma City University(OCU)와는 자매 대학이 아니었으므로, 그 대학의 부 총장을 만나서 상담을 하였다. 부 총장의 주선으로 학과장 및 대학장을 만나서 다른 자매 미국 대학과 같이 학점 인정을 요구했고, 몇 가지 숙명여대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인터뷰를 했고, 항상 실력 보다는 실전에 강한 나는 여기에서도 대단한 신기를 발휘하여, 그들을 감탄 시키며, 12 학점을 인정 받았다. 이로 인해 그 다음 해부터 숙명여대 TESOL 학생들은 모두 12 학점을 인정 받고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숙명여대에서는 단 한번도 나에게 감사의 말씀도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나 할까, 서운하다고나 할까.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미국인들과 다녔고, 한국 학생과는 거의 교류가 없어서인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한국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영어와 보내고 싶었고, 그 곳에서 한국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한 두달이 지나면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면 1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능한 한 빨리 석사 학위를 받고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유학생이 미국에서 직업 갖기는 하늘의 별 따기 라는 말들을 하며, 특히 오클라호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항상 그렇듯이 나는 원래 남의 말을 잘 안듣는다. 내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지레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알아 보기로 했다. 미국에 온지 6개월째부터 인터넷을 통해 직업 서치를 했는데, 셀 수도 없이 많은 곳에 job 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재미로 몇 군데 이력서를 보냈더니,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덴버등에서 마구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뿌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오클라호마에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배제하고 오직 오클라호마시에서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한계를 갖게 했으나, **Oklahoma Daily** 의 **classified** 를 열심히 훑어보고, 'Opening'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달려가서 지원서를 내곤 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명언을 언제고 잊은 적이 없는 나는 열심히 두드렸고, 결국 졸업 전에 세 군데의 직장에서 동시에 합격을 했다. 학위 취득 전에 **INS**(미 이민국)에 **Practical training** 이라는 **work permit** 을 신청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미리 합격한 직장 중 두 군데에 동시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는 투잡스족을 이미 수년 전에 미국에서 실천했다는 사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자네들보다 앞서 같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 진행될 잡(job)과의 전쟁을 기대하시길...